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고 붕괴되는 것은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가정주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의 하나가 바구니 물가이고, 표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도 시장바구니 물가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간지들도 가정주부 독자를 의식해서 배추값이 오르면 배추값 폭등이라고 기사를 쓰고, 배추에 날개를 단 만화를 그려 물가당국을 질책한다. 그러나 값이 떨어질 때에는 기사 가치가 있는지 보도도 하지 않는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지난 해 목포에서의 여객기 추락이나, 얼마 전 공군의 제트전투기 훈련중 충돌 추락 등에는 해당될지 모르나 날개도 없는 것들이 추락하고 있어 우리를 놀라게 한다.

몇 일 전 서울 성수대교에서의 버스, 승용차들의 추락이 그것이다. 그동안도 버스나 승용차들이 한강 다리를 건너다 운전 부주의나 충돌 또는 과음운전 등으로 추락한 적이 있었지만, 다리 상판 자체까지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지고 보면 남해에서, 팔당에서, 행주에서 이미 예고편이 상영되었고 TV에서 카메라 고발로

예고한 것이기는 하다.

정확한 다리 붕괴의 원인은 추후 발표되겠지만, 도시 과밀에 따른 과도한 차량 통과와 과적 차량의 통행이 다리를 피로하게 만들고, 버티다 못한 성수대교가 더 버티기를 포기한 것과 부실공사, 부실관리가 겹쳐진 것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진다. 버티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것이다.

떠나는 농촌으로 도시 과밀화는 필연이고, 과밀된 도시인의 이동과 이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구조적으로 악의 씨앗은 잉태되기 마련이다. 3,000여년 전 이미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조중 가인이라는 살인범이 농촌을 떠나 도시문화를 건설하면서 불행이 점점 커가다가 드디어 라멕이라는 손자에 와서는 지존과가 탄생되는 필연성을 고백하고 있다. 우리는 역시 가인의 후예인가 보다.

최근 돼지값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3천여명의 양돈농가가 떠나 갔다. 아직 양돈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피로한 양

“추락하는 것들은
 날개가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버스·승용차 등 날개도 없는 것들이
 추락하고 있어 우리를 놀라게 한다. 다리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 수입개방후 농축산업의
 붕괴를 생각하고, 유람선의 화재를 보면서
 수입개방으로 양돈호에 불이 나 당황해
 하고 헤엄도 못 치는 양돈농가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신경쇠약 때문일까?

돈업을 보고 있는 느낌이다.

수입 돼지고기는 계속 방출되어 더욱 양돈농가는 피곤하다. 양돈업계를 과적차량이 짓누르고 지나가는 느낌이다. 다리가 튼튼할 때는 무거운 짐을 싣고 지나가도 버티지만, 이제 한계 중량에 가까워 오기 때문에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

사료가격도 3~4% 정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한다. 지난 2년 반동안 버티어 왔는데,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더 버티다가는 사료업계가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인건비가 오르고, 특히 물류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 곡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과적 차량으로 단속되기 때문에 그동안 진작부터 사료업계만은 과적을 안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료업계 혼자 물류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양축가와 나누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양축농가가 한강다리 붕괴를 막는 데까지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축산업계는 피로하다. 그동안 97년이면 붕괴될 지도 모른다는 고발이 계속되어 왔다. 사료와 동물약품, 기자재에 대한 관세·부가세 영

세율 적용이라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해도 유지가 어려운데 안전하다, 튼튼하다,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구조개선을 하고 있다고 외치기 전에 이제는 과학적이고도 정밀한 진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금이 간 곳, 볼트가 빠진 곳, 떨어져 나간 곳을 보수해야 한다.

페인트 칠로는 근본적으로 버틸 수 없다. 이번 성수대교가 페인트칠을 한 지 한 달 만에 붕괴된 것도 페인트 업자만 혜택을 보았지 페인트 칠이 다리 붕괴를 막는 데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

우선 다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돈업이 하나의 업으로 유지되고,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할 자금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설계, 새로운 시공, 새로운 감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리가 붕괴되는 것을 보며 완전 수입개방후 농축산업의 붕괴를 생각하고, 충주호에서 유람선의 화재를 보면서 수입개방으로 양돈호에 불이 났을때 한 배에 탄 양돈농가의 당황한 모습, 헤엄도 못 치는 양돈농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필자의 신경이 너무 쇠약하였기 때문일 것이다.